

日帝下 在京 日本인의 朝鮮實業銀行 설립과 경영

洪性讚

한말에 來韓한 일본인들은 일제의 강력한 비호를 받으며 서울의 사회·경제·문화·사상 각 방면을 장악해 갔다. 특히 일찍이 서울의 금융업계에 진출하여 금융회사, 은행 등을 설립했던 一羣의 민간인들은 1910년대 말에 株式景氣가 호황을 보이자 1920년에 한국 최초의 證券去來所인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株)을 설립하는 한편 證券金融機關의 설립에도 나서 그해 6월에 京取의 機關銀行格으로 朝鮮實業銀行을 창립하였고, 1921년 4월에는 京取의 子會社로서 京城證券信託(株)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京取·朝鮮實業銀行·京城證券信託으로 연결된 金融支配網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금융계의 한 軸을 장악하였고, 이를 통하여 한국 財界·金融界의 명실상부한 민간인 실력자로 浮上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과정에서 등장한 朝鮮實業銀行의 설립·경영·해산 과정을 다룬 사례 연구이다.

I. 序 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來韓·入京한 일본 민간인들은 그 후 일제의 강력한 비호아래 서울의 사회·경제·문화·사상 각 방면을 장악해 갔다. '한국인의 서울'을 '일본인의 京城'으로 재편해 간 것이다.¹⁾ 특히 이들 가운데 일찍부터 서울의 금융계에 진출하여 금융회사, 일반은행 등을 설립·운영해 왔던 一羣의 일본인들은, 1910년대 말에 1차대전 特需를 배경으로 株式景氣가 엄청난 호황을 보이자, 1920년에 한국 최초의 證券市場·證券去來所로서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株式會社(이하 京取)를 설립하는 한편 證券金融機關 설립에도 나섰다. 앞서 자신들이 설립·운영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1) 李順鐸 [16].

해 왔던 京城銀行을 母體로, 여기에 1907년이래 在京 일본인 유력자들이 설립·운영해 온 京城十友合資會社라는 금융회사를 합병하고, 京仁지역의 여타 일본인 유력자들까지 참여시켜, 1920년 6월에 京取의 機關銀行格으로 朝鮮實業銀行을 창립했고, 1921년 4월에는 京取의 子會社로서 京城證券信託(株)을 설립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1920년대 초에 京取·朝鮮實業銀行·京城證券信託으로 연결되는 방대한 金融支配網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금융계의 한 軸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하여 한국 財界·金融界의 명실상부한 민간인 실력자로 浮上하였다. 본 논문은 이 과정에서 등장했던 朝鮮實業銀行(이하 實銀)의 설립·경영·해산 과정을 사례연구로서 검토하려는 것이다.²⁾

본고에서 이 문제에 주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근대금융사를 계통적으로 정리하려면 개별 은행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례연구 축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제하 한국의 일반은행사는 合併의 역사였다. 1910년대에 집중 설립되어 1920년 말에 21개로서 頂點에 달했던 일반은행은 그 후의 경기변동과 은행합동정책으로 부단하게 合併되어, 1943년에는 朝興·朝鮮商業 두 은행만 남았다. 이에 그 동안 학계는 한국근대금융사를 계통적으로 정리한다는 목표아래 이 시기의 은행합병사에 관한 상당한 연구를 축적하였다.³⁾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미진함도 남아 있었다. 개별 은행의 經營資料에 접근하여 이들의 동태를 구체적인 사례연구로서 검토하는 데 다소 소홀했고, 일본인 은행에 대해서는 더욱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다.⁴⁾ 그런데 여기서 검토할 實銀은 1920년 출범 당시부터 단순한 일반은행이 아닌 京取의 機關銀行으로 출발하였고, 1924년에는 朝鮮商業銀行과 對等 合併하여 '朝鮮商業銀行'(이하 朝鮮商銀)이라는 行名아래 한국 최대의 일반은행이 되었다. 그 후 이 은행은 총독부의 비호아래 주로 일본인 은행을 합병하여, 일제 말에는 그 동안 한국인 은행을 주로 합병하여 온 朝興銀行과 더불어 일반은행 합병의 한 本流가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일제하 일반은행 합병사의 한 흐름을 해명한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특히 實銀과 朝鮮商銀의 합병은 朝鮮總督府, 朝鮮銀行, 京城商業會議所가 적극 개입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제하의 대표적인 은행합병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서 당시 일반은행 合併의 한 典型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일제의 한국강점사를 총체적으로 해명하려면 일본인의 定着·活動·侵略史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학계는 일제의 정치·군사

2) 京取, 京城證券信託, 京城銀行의 설립·경영·해산 과정은 洪性讚 [24], [25], [27].

3) 高承濟 [12], 趙璣濬 [18], 堀和生 [29], 李頌蕃 [15], 배영목 [13], 尹錫範 外 [14], 朝興銀行 [19], 韓國商業銀行 [21], [22], 洪性讚 [23], [25], [26].

4) 洪性讚 [23], [25].

적 침략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축적했지만, 일제의 침략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實踐한 일본인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⁵⁾ 그런데 1920년에 實銀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인물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入京하여 在京 일본인 居留民團과 商業會議所를 주도적으로 창립·운영하는 한편, 일찍부터 서울의 金融業界에 진출하여 다수의 금융회사와 한국 최초의 일본인 本店銀行인 京城銀行을 설립·운영해 온 在京 일본인 사회의 거물급 인사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1920년에 京取를 설립하여 直接金融을 장악하고 그 姊妹金融機關으로서 實銀을 설립하여 間接金融까지 장악해 간 과정은, 일본의 민간인들이 한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중심부였던 서울의 구석구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民間人 支配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던가를 金融史의 측면에서 보여 줄 요긴한 소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1910년대에 在京 일본인 사회와 京城商業會議所에서 서서히 영향력을 상실해 간 이들이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전반에 實銀, 朝鮮商業銀行, 京取의 운영에서조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이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인물들이 그 자리를 하나 둘 메꾸어간 사실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 재계의 일본인 지배그룹이 어떻게 世代交替되고 있었던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II. 設立의 背景과 經過

1. 「京取」의 설립과 證券金融機關의 모색

1910년대 말 일본은 1차대전 特需를 배경으로 엄청난 好況을 누렸다. 수익률이 높으며 기업의 新增設이 이어졌고, 자금수요가 늘며 證市도 활황을 맞았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주지하듯 일제는 막대한 식민지 拓殖資金을 동원하여 한국의 '利源'을 開發하고 그를 收奪하는 데에 강점정책의 기본목표를 두었다. 資本主義의 機構를 통해서, 자본을 매개로 하여 수탈을 꾀했던 것이다. 따라서, 大衆資本 동원을 위한 증권시장의 정비가 필수적이었지만 당시 한국에는 公認된 證券去來所·證券市場이 없었다. 證券 붐을 타고 20여 證券商이 출현하여 증권을 거래했지만, 定期的·定處的 거래가 아닌 非組織市場에 불과하였다.

증권시장의 설립이 시급한 가운데, 在京 일본인과 한국인들은 1919년부터 증권

5) 在韓 일본인에 대한 社會史的 검토는 木村健二 [30], [31], [32].

거래소 설립에 경쟁적으로 나섰다.⁶⁾ 1919년 5월에는 京仁지역의 일본인 유력자 釘本藤次郎, 古城菅堂, 和田常市, 山口太兵衛, 天日常次郎 등과 일본인 證券商 田中友吉, 有田長, 新田耕市 등이 有價證券의 定期去來를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의 (株)京城株式現物取引所 설립을 신청하였다. 그 해 11월에는 한국인 유력자 李允用, 閔泳綺 등이 일본인 유력자 中村再造, 小林藤右衛門, 廣江澤次郎 등과 함께 米豆, 有價證券, 綿絲布의 定期去來를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 원의 (株)京城取引所 설립을 출원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이를 모두 불허하였다. 아직 한국에는 去來所法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釘本등은 회사명을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株式會社(京取)로, 사업목적도 現物去來로 고쳐 설립을 재출원했고, 李允用등도 회사 형태를 現物市場으로 고쳐 재출원하였다.

1919년 말, 1920년 초는 극도의 호황기로서 증권거래도 未曾有의 붐을 맞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증권거래소, 증권시장 설립권을 따낸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였다. 이에 총독부는, 앞의 두 세력이 경합하는 가운데, 1920년 1월 李允用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釘本등에게 國內株를 주로 거래하며, 受渡期間은 3일로 하고, 발기인, 주주, 증역에 한국인도 참여시킨다는 조건아래 京取 설립을 인가하였다. 자본금 300만 원의 京取를 설립하여 주식을 上場하고, 仲買人을 통하여 現物去來하게 하되, 설립시 한국인도 참여시켜 內鮮一體의 명분을 얻고 競合에서 탈락한 한국인을 무마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증권시장인 京取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證券金融機關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에 釘本등은, 1919년 10월 총독부가 京取의 설립을 전제로 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朝鮮財界의 唯一한 缺陷인 株式金融機關'⁷⁾ 설립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하나는 순전한 證券信託會社를 설립하는 案이고,⁸⁾ 다른 하나는 證券金融·證券信託에 주력할 銀行을 설립하는 案이었다. 은행설립안은 기존의 京城銀行(이하 京銀)을 增資·활용하는 案과,⁹⁾ 京銀을 모체로 京城十友合資會

6) 京取 設立 과정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洪性讚 [24].

7) 「每日申報」 1919. 12. 15.

8) 在京 일본인 證券商들은 1919년 말부터 證券信託會社 설립을 추진하였다. 京取 설립이 기정사실화되고 중국 大連의 證券界가 '信託會社의 활동'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자, 일본의 有力銀行에서 '資金需給上의 了解를 得' 하고, '大阪 및 朝鮮 各地의 유력자'를 발기인으로 끌어들이 자본금 200만 원의 信託會社 설립을 계획한 것이다(「每日申報」 1919. 12. 15). 1919년 12월 16일 野村德七(大阪), 大池忠助, 香椎原太郎, 平野宗三郎, 廣澤正次郎, 吉田秀治郎, 田中友吉, 小林藤右衛門, 小杉謹八, 新井虎太郎, 多田榮吉, 景山義郎 등이 자본금 200만 원의 朝鮮證券信託會社 설립을 청원한 것도 같은 예였다(「매일신보」 1919. 12. 17).

9) <朝鮮實業銀行創立趣意書>. 이하 본고에서 활용할 實銀 創立關係 문서들은 朝鮮實業銀行 [1], [2]에 들어 있다.

社¹⁰⁾와 여타 일본인 유력자를 영입하여 새 銀行을 창립하는 案을 모두 검토했는데, 결론은 새 은행 창립쪽으로 정해졌다.

京城에서 地株[國內株]에 대한 金融機關 결핍은 朝鮮 事業界단지 장차 株式界를 위하여 遺憾이었으나 諸種의 사정은 그 실현을 곤란하게 하여 종래 전혀 각 銀行과 융통을 俟했으나 각 은행의 株式金融은 地株를 嫌하는 事가 過多하여 … 근래 有力會社의 續出과 既設회사의 발전은 地株金融機關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다시 不遠에 生할 京城現株市場은 受渡 기타의 機關으로 信託銀行을 필요로 함에 … 過般來 現株市場 관계의 유력자는 각종으로 협의의를 거듭하여 有力銀行 方面의 了解를 得함과 如한 바 아직 確定案은 성립치 못했으나 대체로 京城銀行 및 京城十友會社 기타 한둘의 貸金機關을 規합하여 자본금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의 信託銀行을 설립하기로 될지며 오직 京城銀行 기타의 合同條件등은 決行時 다소 의논이 有할 터이나 상당히 有利한 것으로 舊株主를 優待하겠고 京城銀行과 如함은 이 方面에 進路를 開치 아니하면 目下 進展의 機會가 적으리라 하여 株主間에서는 상당히 환영함과 如하며 또 자본금은 一舉 1,000만 원을 함이 如何한가 하는 소극론도 有하나 중심이 될 유력자의 의견은 1,000만 원에 在하여 아마 此邊에 낙착될 듯.¹¹⁾

京銀을 모체로 京城十友合資會社등을 糾合하여 자본금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銀行을 설립한 후 이를 京取의 '株式金融機關', '信託銀行' 으로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할 實銀이 바로 그 은행이다.¹²⁾

2. 設立의 經過

實銀은 京取와 '서로 呼應' 할 '不可離한 關係'의 株式金融機關, 證券信託銀行, 機關銀行으로서 설립이 추진된 까닭에¹³⁾ 京取보다 먼저 창립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實銀은 京取가 설립인가(1920. 1. 26)를 받기 전인 1920년 1월 10일 창립발기인회를 열었다.¹⁴⁾ 발기인은 中村再造, 古城菅堂, 秋吉富太郎, 山口太兵衛, 古城梅溪, 和田

10) 1907년 1월 在京 일본인 유력자인 三田政治郎, 梶原末太郎, 中村再造, 釘本藤次郎, 藤富國太郎, 岡本德之助, 小林豊藏, 濱野徳次郎 등 10명이 설립한 자본금 10만 원의 '商品賣買, 貸金業' 회사이다. 川端源太郎 [11].

11) 「毎日申報」 1919. 12. 15.

12) 이하 實銀에 관한 다음의 좋은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韓國商業銀行 [21], [22].

13) 「동아일보」 1920. 5. 14, 6. 24; <朝鮮實業銀行設立趣意書>.

14) <朝鮮實業銀行創立ニ關スル決議 1920. 1. 10.>.

常市, 關繁太郎, 梶原末太郎, 釘本藤次郎, 天日常次郎, 松本勝太郎, 林田金次郎, 高木德彌, 佐野彦藏, 吉田秀次郎, 三田政治郎, 新井虎太郎, 安盛孫兵衛 등 18명이었다. 京銀의 중역과 京取의 발기인을 주축으로 하여 仁川米豆取引所(이하 仁取)와 京城商業會議所(이하 京城商議)의 일본인 관계자들, 그리고 在京 일본인 유력자들을 거의 망라한 구성이었다.¹⁵⁾ 여기서 발기인들은 行名을 朝鮮實業銀行으로 하고, 창립사무소는 京銀에 두며, 발기인은 25~30명으로 하되 이들에게 1인당 500株 이상을引受시키기로 했고, 창립위원에 古城菅堂, 中村再造, 和田常市, 釘本藤次郎, 天日常次郎, 吉田秀次郎, 林田金次郎 7명을 선임하였다.

實銀이 창립준비에 나선 1920년 초는 好況이 절정에 달한 때로서, 株價가 폭등하고 去來量이 늘어 京取와 그 자매기관인 實銀의 장래는 낙관적이었다. 특히 최초의 발기인 18명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入京하여 在京 일본인 居留民團과 京城商議의 설립·운영을 주도하며 경제적 富와 사회적 地位를 함께 쌓은, 그리하여 일본정부와 총독부의 신임이 남달랐던 서울의 巨物級 일본인들이었다.¹⁶⁾ 朝鮮銀行도 “株式金融을 間接援助” 한다는 취지에서 實銀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¹⁷⁾ 이에 발기인 신청이 쇄도했고, 實銀은 당초 25~30명으로 구성하려던 발기인(500주 이상 贊成人)을 40여 명으로 늘렸다.¹⁸⁾

설립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1920년 1월 29일 40여 명의 발기인들은 古城菅堂을 發起人 대표에, 中村再造, 和田常市, 釘本藤次郎, 天日常次郎 4명을 創立委員에 선정하였다.¹⁹⁾ 발기인은 그 후 45명으로 확정되었는데, 京銀의 前現職 重役 전원과 주요 株主, 京取의 發起人和 仲買人, 仁取의 중역, 京城商議 등에서 활동한 일본인 유력자가 거의 망라되었다(〈부록〉 참조). 특히 京取의 일본인 발기인 17명 가운데 在京 인사 8명은 모두 實銀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²⁰⁾ 1920년 2월 2일 이들은, 京取보다 먼저 개업한다는 목표아래, 총독부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였다.²¹⁾ 다음은 설립취지문이다.

大戦以來 勃興의 機運을 맞은 朝鮮 事業界는 對外貿易 好황, 諸物價 昂등으로 資金이 더욱 윤택해져 각종 사업이 연이어 일어나며 1919년에는 計劃資本이 실로 43億 圓이라는 거액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계의 異常 發展에 수반하여

15) 발기인들의 경력은 洪性讚 [24], [25]와 본고의 〈부록〉 참조.

16) 洪性讚 [24], [25].

17) 「毎日申報」 1920. 1. 14.

18)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회(1920. 1. 29) 개최를 통지했던 발기인은 43명이었다.

19) 〈朝鮮實業銀行發起人會決議錄〉.

20) 洪性讚 [25], 「동아일보」 1920. 6. 24.

21) 〈事業目論見書〉; 「매일신보」 1920. 1. 29, 2. 6.

事業 및 資金의 消化 범위는 확대하고 각종 경제관계도 복잡해져 金融機關의 특수 활동도 촉진되어 왔다. 우리 朝鮮은 비록 內地 財界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內地 財界의 好調에 따라 각종 사업계획이 줄을 잇고, 자금의 流通과 投下도 큰 증가를 보게 되었다. 그렇지만 조선 사업계의 추세와 資金의 투하 및 유통 현상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 사업계획은 地方的 色彩를 띠었고 投資도 地方에 固定되어 자본을 釀成하는 株券은 오로지 地方 株券으로서 資金의 유통력을 減殺당하여 그 중 많은 것이 一個人의 손에 死藏되고 있다. 더욱이 조선에서는 株券 및 有價證券의 公正去來機關이 缺如되어 資金固定을 심화시켜 왔음은 일반은행업자로서 심히 유감으로 여겨 온 바였다. 이런 가운데 조선에서도 有價證券 去來市場이 거의 실현되기에 이른 것은 조선 경제계의 前途를 위하여 크게 慶賀할 일이다. 그래서 이들 機關과 서로 呼應하여 朝鮮 사업계의 進運에 적합한 一大 地方金融機關을 施設하는 것은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의 主旨在 기초하여 株式會社 京城銀行을 增資하여 이 임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 극히 適宜한 조치이겠지만, 이는 미납자본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므로, 이번에 발기인들은 서로 상의하여 자본금 500만 원의 朝鮮實業銀行을 창립하고 여기에 京城銀行과 十友合資會社를 병합 통일시켜 地方 株券의 消化와 融通의 길을 열고 각종 事業에 대한 資金調節을 꾀하여 財界의 요구에 순응하고 조선경제계의 발전에 공헌하려고 한다.²²⁾

財界의 숙원이던 증권거래소(京取) 설립을 맞아, 자본금 500만 원의 實銀을 창립하고 이를 京取와 '서로 呼應'케 함으로써, 그 동안 死藏되었던 證券의 流通을 활성화하고 각종 事業資金 調達에도 만전을 기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1920년 3월 15일, 총독부는 京銀 本店과 조치원, 청주 支店 업무를 승계받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조건아래 實銀 설립을 인가하였다.²³⁾ 實銀은 곧 주식모집에 착수하였다. 당초 實銀은 창립주식 10만 주(500만 원, 납입자본 125만 원, 1주당 12원 50전 납입)를 京銀에 4만 주, 京城十友合資에 1만 주, 發起人에 3만 주, 각 地方에 1만 주씩 할당하고, 나머지 1만 주를 公募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월 초 원산, 인천, 조치원, 청주, 천안 등지에서 이미 1만 4,000여 株의 割當신청이 쇄도했고, 설립인가를 일찍 받으려면 公募보다 割當이 유리했으므로, 3월 19일 발기인회는 앞서 1만 주로 예정했던 공모주를 2,000주로 축소하였다.²⁴⁾

實銀이 발기인, 찬성인에 대한 주식할당을 마치고 공모주 청약을 시작한 1920년 4월은 그 해 3월 일본에서 발발한 反動恐慌으로 財界가 공황에 빠져 든 때였다. 이

22) 〈株式會社朝鮮實業銀行設立趣意書〉.

23) 〈理第239호 許可狀 1920. 3. 15〉.

24) 〈朝鮮銀行總裁殿, 發起人總代 古城舊堂 1920. 2. 4〉; 「매일신보」 1920. 3. 20.

에 1920년 4월 8일부터 실시한 공모주 청약은 극히 부진했고, 4월 13일까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1,060주만 청약되었다. 4월 20일부터 실시한 제1회 주식대금 납입도 순조롭지 않았다. 5월 13일부터 사흘간 재납입받았지만 미납자가 많아 마감일을 6월 5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미납된 주식은 失權처리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제1회 株式代金이 완납된 株數는 9만 7,655주로서 不應募株 1,550주와 失權株 795주가 발생하였다.²⁵⁾ 實銀은 이를 받기인들에게 인수시킴으로써²⁶⁾ 공모 개시 두 달만인 6월 10일 주식인수와 대금납입을 모두 마쳤다. 받기인 인수주는 3만 200주였고(〈부록〉 참조), 기타 인수주는 6만 9,800주(贊成株 6만 7,800주, 公募株 2,000주)였다.²⁷⁾ 한국인은 7명이 350주를 인수한 데 그쳐²⁸⁾ 일본인 주주가 압도적 비중을 점하였다.²⁹⁾ 1,000주 이상 대주주는 京銀(4만 주), 京城有價證券現物問屋組合(1,000주) 등을 제외하고는 받기인들 뿐이었다(〈표 1〉 참조).³⁰⁾

창립총회는 6월 25일에 열렸다. 定款과 증역도 정했는데,³¹⁾ 京取의 機關銀行格으로 설립되었던 까닭에 다른 일반은행들과 달리 定款의 營業種目에 '債券 및 株式의 引受 募集 應募와 그 拂入의 代辯'(제33조 제8항)을 추가하였고, 증역진도 慶尙農工銀行 副支配人·朝鮮商銀 支配人을 거쳐 朝鮮銀行 추천으로 영입된 豐田과 賀田³²⁾을 빼고는 京銀 증역과 京取·仁取 관계자로만 구성하였다(〈표 2〉 참조). 京取의 받기인으로서 그 후 社長과 專務에 취임한 釘本과 天日은 감사역이 되었다. 京

25) 〈朝鮮實業銀行創立ニ關スル事項報告書, 創立委員長 古城蒼堂 1920. 6. 25〉.

26) 中村再造(3,396주), 釘本藤次郎(1,428주), 梶原末太郎(2,142주), 古城蒼堂(1,095주), 三田政治郎(1,428주) 등이 인수하였다.

27) 〈朝鮮實業銀行創立事項調査報告書, 創立事項檢査委員 1920. 6. 25〉.

28) 한국인 株主(株式) 비중은 그 후에도 낮았다. 1920년 말에는 총주주 417명 중 12명(10만 주 중 670주 소유), 1921년 6월에는 468명 중 11명(520주), 1922년 6월에는 456명 중 12명(510주), 1922년 말에는 446명 중 10명(870주), 1924년 6월에는 467명 중 12명(1,275주)에 불과하였다. 한국인 주주 비중이 컸던 1920년 말에도 총주주의 2.9%에 불과했고, 이들의 주식소유 비중이 컸던 1924년 6월에도 주식점유율은 1.3%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주주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29) 대부분 한국 거주자들이었다. 한국 바깥에 거주한 일본인 주주는 1920년 말 일본 14명(4,328주), 중국 1명(100주), 1921년 6월 일본 18명(5,330주), 중국 1명(100주), 1922년 6월 일본 24명(5,363주), 중국 1명(200주), 1922년 말 일본 27명(5,608주), 중국 1명(200주), 1924년 6월 일본 38명(7,031주)으로서 그 비중이 가장 큰 1924년 6월에도 전체 일본인 주주(455명, 주식으로는 9만 8,725주)의 92.0%(417명, 주식으로는 92.9%인 9만 1,694주)가 한국 거주자였다(實銀 各期 영업보고서).

30) 50주 이하 주주는 전체의 61.9%(208명)로서 주식의 6.3%(6,255주)를 소유하였다. 〈朝鮮實業銀行創立事項調査報告書 1920. 6. 25, 創立事項檢査委員〉. 京銀의 4만 주는 京銀의 株主들에게 할당될 몫이었다.

31) 〈創立總會決議錄〉. 定款은 韓國商業銀行 [20].

32) 동경제대를 졸업하고 1903년부터 대만,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였다. 1917년 총독부에서 나와 京畿道評議員, 朝鮮總督府土木會評議員, 朝鮮皮革·東洋畜産興業 사장, 西鮮殖産鐵道 상무 등을 지냈다. 貴田忠衛 [7].

〈표 1〉 朝鮮實業銀行의 大株主(1,000株 이상)

이름	1920. 5	1920. 12	1921. 6	1924. 6	참고
京城銀行	40,000				
中村再造*	4,396	10,746	10,746	10,758	十友사원
梶原末太郎*	3,142	4,942	4,942	3,762	十友사원
釘本藤次郎	2,428	2,428	2,428	2,428	十友사원
古城菅堂*	2,095	5,123	5,123	4,028	
三田政治郎	1,928	1,450			十友사원
秋吉富太郎*	1,500	2,300	2,300		
中村弘*	1,428	2,528	2,528	2,168	
小林豊藏	1,428	1,428	1,428	1,428	十友사원
古城梅溪*	1,000	4,460	4,460	4,460	
和田常市*	1,000	4,000	4,000	3,500	
林田金次郎	1,000	1,000	1,000	1,000	
賀田直治	1,000	1,000	1,000	1,000	
内海淑郎	1,000	1,000	1,000	1,600	
天日常次郎	1,000	1,000	1,000	1,000	
廣澤正次郎	1,000	1,000	1,000	1,364	
關繁太郎*	1,000	1,000	1,000	1,000	
吉田秀次郎	1,000	2,024		1,148	
安盛孫兵衛	1,000				
京城現物組合	1,000				
山口太兵衛*		4,200	4,200	4,200	
飯塚徹*		2,540	1,390		
中村伊勢子*		2,400	2,400	2,400	
中村昇*		1,600		1,600	
末森富良		1,176	1,316	1,266	
藤崎半助		1,110	1,110	1,110	
藻秋吉正夫				1,400	1924년에 京取중매인
實銀行友會				1,398	
奥村源太郎				1,175	청주지점 지배인
伊藤榮				1,000	조치원지점 지배인
加來榮太郎				1,000	京取 發起人, 仁取 重役

자료 : 「實銀 各期 營業報告書」. 1,000주 이상만 기재. 内海淑郎, 廣澤正次郎은 仁川, 기타는 서울 거주. 吉田秀次郎은 元山商業銀行 또는 仁川倉庫(株) 代表清算人 자격. *는 京城銀行 대주주.

〈표 2〉 조선실업은행 임원

이름	1기	2~7기	8기	참고
古城菅堂	頭	두	-	仁取 중역, 京銀 취체역, 京取 創立取締役·相談役·監査役
豐田明敬	專	전	-	朝鮮商銀 지배인
中村再造	取	취	취	京銀 두취
山口太兵衛	취	취	頭代	京銀 취체역, 京取 창립취체역·취체역
峯尾香三郎	취	-		京銀 지배인, 京取 專務, 京信 전무
賀田直治	취	취	취	
吉田秀次郎	취	취		仁取 취체역
古城梅溪	監	감	감	京銀 대주주, 京信 감사역
秋吉富太郎	감	감	-	京銀 주주
和田常市	감	감	감	京銀 취체역
釘本藤太郎	감	감	-	京取 社長
天日常次郎	감	감	-	京取 專務·취체역·社長, 仁取 감사역

자료 : 〈표 1〉 洪性讚, 앞의 글, 1999. 頭 = 頭取(銀行長), 取 = 取締役(理事) 監 = 監事役(監事), 頭代 = 頭取代理(銀行長代理). 秋吉富太郎은 1923년 8월 사망.

取는 實銀에 監事를 파견했던 셈이다. 한편 京銀은 6월 28일 임시주총을 열어 해산과 재산처분을 결의한 후,³³⁾ 7월 5일 모든 업무를 實銀에 양도하고 해산하였다. 京銀 계통인 京城十友合資會社도 이 때 實銀에 買受合併되었다.

당초 實銀은 京取의 機關銀行으로서 일반은행 업무와 證券信託業에 주력할 방침이었다.³⁴⁾ 그런데 反動恐慌 이후 '財界惡化의 時代'³⁵⁾를 맞아 米穀, 滿洲粟, 綿絲布 등 주요 상품가격이 폭락하고 금융이 긴축된 데에다, 특히 株價가 폭락하며 '變動不常' 한 때문에 證券금융에만 지나치게 주력할 수는 없었다.

朝鮮實業銀行은 창립 당초에 證券信託을 主業으로 하기로 하여 京銀, 十友 2社를 합병하여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할 계획이더니 京株市場의 창립이 目前에 在한 동시에 이와 提携 併進할 實業銀行이 資金調達로 遲延하여는 그 목적에 反하는 꼴라 하여 다수 贊成株의 新입을 拒絶하고 드디어 500만 원으로 개업하고 장래 필요에 따라 增資하기로 되었는데 그 발기인은 거개 京株市場의 發起人과 동일하여 京株와 實銀은 여사한 不可離한 관계에 있으므로 株式引受者도 역시 證券信託銀行으로 장래 囑望한 바인 데 최근 實銀의 방침이 一變했다는 說이 頗盛

33) 「동아일보」 1920. 6. 30.

34) 「매일신보」 1920. 2. 6.

35) 〈實銀 제1기 영업보고서〉.

한 바 專務취체역에 취임할 豐田明敬氏는 某株式店主에 대하여 “實銀은 株式店 등의 機關은 되지 않는다”고 명언하여 주식금융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모양이므로 이를 感知한 株主 중에는 크게 분개하여 證券金融을 不計하는 以上은 그 목적에 反하는 자라 하여 분개한다는 데 實銀 發起人의 의향은 財界不安의 때에 變動不常의 證券에 대하여 금융을 計하는 것은 실로 위험하므로 재계의 平靜에 赴하기까지는 普通銀行 업무를 營하고 京株市場이 열려 주식의 公定市勢를 賦與된 후에 서서히 금융의 便을 計함도 不晚이라 稱하고 주식금융을 絶對不行함이 아닌즉 불원간 하등의 방법으로써 株式金融을 計하리라 관측하는 자 有하다.³⁶⁾

재계가 안정될 때까지는 一般銀行 업무에 주력하고, 京取 개장 후 주식의 公定時勢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증권금융에 더욱 주력하기로 하였다.³⁷⁾

III. 經營變動과 朝鮮商業銀行과의 合併

1. 經營變動

1920년 7월 15일에 개업한³⁸⁾ 實銀은 7월 25일에 앞서 京銀에서 인수한 조치원·청주 지점 설치를 동기신청했고, 11월에는 仁川支店 설치와 倉庫業 經營을 신청하여 12월부터 이를 개업하였다. 1921년 4월에는 ‘市內 金融網을 조사한 결과 漢江通에 진출할 필요가 있어’ 龍山지점을 열었다.³⁹⁾ 한말이래 日本人 密集地였던 仁川과 龍山에 지점을 낸 것이다. 實銀은 서울의 유일한 일본인 본점은행담게 개업 직후부터 그 동안 京銀에서 취급해 온 京城府金庫와 京城學校組合金庫 업무를 인수했고, 1922년 1월에는 第一·漢城 은행에서 취급해 온 京城商議의 賦課金 취급권도 따냈다.⁴⁰⁾ 1922년 상반기에는 제2회 자본금 납입을 실시하여 납입자본을 125만 원에서 200만 원(1주당 20원)으로 늘렸다.⁴¹⁾ 개업당시 實銀의 流動資金은 自己資本(제1회 납입 125만 원), 預金(京銀 引受分), 借入金(조선은행 대출금)을 합하여 약

36) 「동아일보」 1920. 6. 24.

37) 「매일신보」 1920. 10. 11.

38) <理第787號. 1920. 7. 1. 銀行營業申請, 1920. 7. 8. 免許 朝鮮總督 齋藤實>.

39) <實銀 제2기 영업보고서>; 「동아일보」 1921. 3. 14, 3. 18, 4. 4. 1921년 8월에는 平壤지점 설치도 계획했으나 허가받지는 못하였다. 「동아일보」 1921. 8. 24.

40) 「매일신보」 1920. 7. 28; 「동아일보」 1922. 1. 25.

41) <實銀 제4기 영업보고서>.

〈표 3〉 조선실업은행의 預金·貸出高 추이

(단위 : 원)

연 차	預入金	預出金	預金殘高	貸出金	貸出償還金	貸出殘高	預貸率
1920. 12	18,899,082	16,613,572	2,285,509	13,701,065	10,299,043	3,402,023	1.49
1921. 6	48,476,925	46,508,342	4,254,092	28,574,933	26,469,151	5,507,804	1.29
1921. 12			4,964,937			7,255,068	1.46
1922. 6	54,478,626	54,548,843	4,894,720	30,170,704	31,118,238	6,307,535	1.29
1922. 12	42,971,775	43,373,203	4,493,292	30,652,783	30,331,220	6,630,098	1.48
1923. 6	49,873,208	48,301,665	6,064,834	36,056,984	35,663,706	7,023,376	1.16
1923. 12	51,556,688	52,218,778	5,402,745	32,822,452	31,803,003	8,042,826	1.49
1924. 6	48,782,501	49,497,341	4,687,905	34,176,841	35,605,987	6,613,680	1.41

자료 : 〈표 1〉과 같음.

300만 원이었다.⁴²⁾ 이로써 商業金融과 함께 株式金融에도 주력할 계획이었다. 實銀의 개업은 京取 개장이 8월로 예정된 터라서 증권업계에 큰 기대를 주었다.⁴³⁾ 그해 7월에는 在京 한국인 은행인 海東銀行도 개업하여 漢城, 朝鮮商業, 韓一銀行 같은 서울의 본점은행들은 물론이고, 在京 일본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實銀과 영업기반이 겹쳤던 서울의 일본인 支店銀行에도 큰 부담이 되었다.⁴⁴⁾ 은행간 경쟁이 격화한 것이다.

實銀은 반동공황 직후에 개업하여 영업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商業金融과 證券金融에 치중하며⁴⁵⁾ 차츰 업세를 늘려 갔다(〈표 3〉 참조). 제1기 말인 1920년 12월에 228만 원이었던 예금은 6기에 600만 원대가 되었고,⁴⁶⁾ 340만 원대였던 대출은 7기에 800만 원대가 되었다.⁴⁷⁾ 在京 본점은행 예금총액에서 實銀이 점한 비중도 京銀 시절의 7.1%에서 1기 9.2%, 6기 16.2%로 늘었고, 대출총액에서 점한 비중도 京銀 시절의 6.8%에서 1기 10.9%, 7기 16.5%가 되었다.⁴⁸⁾ 預貸額이 모두 늘고 자금원천

42) 「매일신보」 1920. 6. 11, 7. 3.

43) 「매일신보」 1920. 7. 16.

44) 「매일신보」 1920. 6. 11.

45) 實銀은 '일본인 財閥의 中心機關'이던 京銀을 承繼한 銀行으로서, '株式資金 短期資金'에 치중하였다. 「동아일보」 1924. 5. 11.

46) 政府방침에 따라 '資成預金 吸收'를 開始하는 등 '勤儉貯蓄을 獎勵'하여 '豫想外의 好成績'을 얻는 한편 實銀의 存在를 내외에 알리기도 하였다(實銀 제5기 영업보고서).

47) 1920년 6월 말 京銀의 예금은 279만 원, 대출은 241만 원이었다. 〈京銀 제14기 영업보고서〉. 따라서 實銀은 제1기(1920. 7. 15~12. 30)에 예금이 51만 원 줄고, 대출은 99만 원 증가한 셈인데, 〈實銀 제1기 영업보고서〉는 제1기에 예금 85만 원, 대출 132만 원이 증가했다고 기록하였다. 京銀 引受과정(1920. 6. 30~7. 15)에서, 반동공황의 여파 등으로, 예금 136만 원이 引出되고 대출도 33만 원 減少했던 셈이다.

〈표 4〉 조선실업은행의 資金源泉

(단위 : 원, (%))

연 차	期數	자기자본	예 금	차입금	기 타	합 계
1920. 12	1기	1,250,000 (30.9)	2,285,509 (56.5)	421,178 (10.4)	85,180	4,041,867
1921. 6	2기	1,255,000 (19.9)	4,254,092 (67.5)	701,435 (11.1)	88,029	6,298,556
1921. 12	3기	1,265,000 (14.8)	4,964,937 (58.0)	2,108,102 (24.6)	224,170	8,562,209
1922. 6	4기	2,030,000 (26.3)	4,894,720 (63.4)	568,990 (7.4)	227,434	7,721,144
1922. 12	5기	2,044,000 (26.2)	4,493,292 (57.6)	1,022,635 (13.1)	239,639	7,799,566
1923. 6	6기	2,055,000 (23.7)	6,064,834 (70.0)	311,043 (3.6)	231,331	8,662,208
1923. 12	7기	2,066,000 (21.1)	5,402,745 (55.1)	2,111,119 (21.5)	226,352	9,806,216
1924. 6	8기	2,076,000 (25.8)	4,687,905 (58.1)	1,029,456 (12.8)	268,743	8,062,104

자료 : 〈표 1〉과 같음.

〈표 5〉 조선실업은행의 資金運用

(단위 : 원, (%))

연 차	貸 出	有價證券	土地建物	現 金	預置金	기 타
1920.12	3,402,023 (84.2)	93,114 (2.3)	52,184	184,836	24,276	285,434
1921. 6	5,507,804 (87.4)	24,244 (0.4)	26,242	367,931	27,002	345,333
1921.12	7,255,068 (84.7)	24,244 (0.3)	5,776	648,570	4,500	624,051
1922. 6	6,307,535 (81.7)	210,676 (2.7)	5,536	678,631	18,168	500,598
1922.12	6,630,098 (85.0)	223,176 (2.9)	5,536	307,005	3,741	630,010
1923. 6	7,023,376 (81.1)	244,937 (2.8)	5,536	699,995	6,196	682,168
1923.12	8,042,826 (82.0)	245,021 (2.5)	23,514	786,813	9,790	698,252
1924. 6	6,613,680 (82.0)	291,521 (3.6)	23,514	366,189	8,391	758,809

자료 : 〈표 1〉과 같음. 자금운용액의 합계는 〈표 4〉의 합계와 같음.

에서 점한 예금의 비중도 1기 56.5%에서 6기에는 70.0%가 되었다(〈표 4〉 참조).

實銀은 이들 자금을 短期 商業資金으로 주로 대출하였다(〈표 5〉 참조). 따라서, 수입도 利息과 割引料가 대종을 점하였다(〈표 6〉 참조). 대출의 일부는 證券金融으로 활용하였다. 1920년 10월부터 京取 仲買人들에게 거래부진 國內株에 대하여 1만 원 한도의 주식금융을 융통했고,⁴⁸⁾ 유가증권담보 대출에도 치중하였다. 그리하여 1921년 7월 말 實銀 本店의 유가증권담보 대출액은 137만 8,000원으로서 殖銀, 朝鮮商銀의 122만 3,000원, 101만 7,000원보다 많았고, 8월 말에도 136만 2,000원

48) 朝鮮總督府 [10].

49) 「매일신보」 1920. 10. 10.

〈표 6〉 조선실업은행의 주요 收入

(단위 : 원)

연 도	利 息	割引料	保管料	株式配當	公債利息	證券賣却益	當期純益	受益率
1920.12	93,901	96,104	208	3,239	160		58,723	4.7
1921.6	241,925	92,067	11,235	1,063	160	12,560	70,125	5.6
1921.12	406,925	103,114	17,349	789	160		90,115	7.1
1922.6	451,081	96,680	24,397	989	518		115,287	5.7
1922.12	460,608	71,076	13,977	5,863	2,160		105,505	5.2
1923.6	504,015	93,296	23,281	6,066	3,004		109,047	5.3
1923.12	473,270	92,896	10,929	5,866	3,136		97,163	4.7
1924.6	496,214	95,716	24,976	4,639	2,976		88,594	4.3

자료 : 〈표 1〉과 같음.

으로서 殖銀과 朝鮮商銀의 111만 7,000원, 122만 원보다 많았다.⁵⁰⁾ 그리고 같은 7월 말 實銀 本店의 유가증권담보 대출액은 6월 말 기준으로 그 은행 本支店 대출금 총액의 무려 25.0%였다.⁵¹⁾ 설립목적대로 證券金融에도 상당히 치중했던 것이다. 그 밖에 實銀은 有價證券의 賣買와 所有(〈표 7〉 참조)에도 주목하여, 證市가 미증유의 호황을 보였던 1921년 상반기에는 1만 2,580원의 賣却益을 얻기도 하였다(〈표 6〉 참조).

그렇지만 實銀의 영업환경과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반동공황이래의 不景氣로 서울 상공업계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證市도 1921년의 일시적 대황황을 제외하고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⁵²⁾ 특히 實銀은 비록 자본금은 本店 銀行들 가운데 가장 컸지만, 營業의 歷史가 짧고, 資金運用도 株式資金과 短期資金에 치중하는 등 여러 면에서 '아직 基礎가 確實한 銀行'이 아니었다.⁵³⁾ 게다가 당시 일반은행들은 설립주체의 민족적 성격에 따라 그 영업기반, 고객층도 민족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實銀도 마찬가지였다.⁵⁴⁾ 이에 實銀은 영업기반 확대, 한국인 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제5기 말에 '當行의 金融網을 鮮商地帶로 延長 進

50) 「동아일보」 1921. 9. 12.

51) 實銀 本店의 7월 말 현재 대출총액을 알지 못하여, 7월 말 實銀 본점의 유가증권담보 대출액을 6월 말의 本支店 대출총액으로 나눈 수치이다.

52) 洪性讚 [27].

53) 「동아일보」 1924. 5. 11.

54) 實銀의 預金과 貸出金의 민족별 점유율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1922년 9월 조선상업은행 대출액의 일본인 점유율이 61.1%였으나, 조선상업은행이 實銀과 對等합병한 직후인 1924년 말의 일본인 대출점유율이 84.3%로 급증한 점으로 보아 實銀의 고객도 극히 일본인 편중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조선실업은행의 有價證券 所有

(단위 : 원)

종 류	1920. 12	1921. 12	1922. 6	1922. 12	1923. 6	1923. 12	1924. 6
朝鮮銀行新株	7,538	168	120	120	120	120	120
南滿洲鐵道株	1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南滿洲鐵道新株	1,500						
中央鐵道新株	98	98	173	173	173	173	173
朝鮮銀行株		13,750	133,950	133,950	128,250	128,250	128,250
朝鮮火災海上保險株				12,500			12,500
朝鮮土地經營株							27,000
山口銀行株							7,000
甲號 5分利公債	68,750	5,229	71,434	71,434	71,434	71,434	71,434
제1회 4分利公債					38,798	38,798	38,798
帝國 5分利公債					1,162	1,246	1,246
계	93,114	24,244	210,676	223,176	244,937	245,021	291,521

자료 : 〈표 1〉과 같음.

展' 시키기 위하여 '鮮人 商業어음의 割引' 을 늘린 것이 예인데⁵⁵⁾ 그럼에도 사정은 같아 여전히 일본인 고객이 주로 출입했고 그 중에서도 우량고객은 일본인 지점은 행과 거래하였다.⁵⁶⁾ 영업기반이 그만큼 취약하였다.

實銀의 예금과 대출이 在京 본점은행들의 총예금과 총대출액에서 점한 비중은 1920년 말 9.2%, 10.9%, 1921년 말 14.6%, 11.6%, 1922년 말 12.6%, 14.5%, 1923년 말 14.7%, 16.5%로서, 이들 은행의 自己資本 총액에서 實銀의 자기자본이 점한 비중인 12.9%, 12.8%, 18.5%, 18.2%에⁵⁷⁾ 미치지 못하였다. 自己資本에 값하는 영업성적도 얻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반동공황 이후의 財界不振으로 實銀은 貸出의 不實化·固定化가 심했고, 증권시장 침체로 擔保株式과 所有證券의 價値가 하락했으며, 1923년 9월의 關東大地震으로 그 동안 일본과 주로 거래해 온 在韓 일본인들이 큰 타격을 받아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던 實銀도 연쇄적인 타격을 입었다.⁵⁸⁾ 1923년 11월 實銀은 조치원지점에 2만 원, 청주지점에 3만 원, 인천지점에 10만 원 등 약 15만 원

55) 〈實銀 제5기 영업보고서〉.

56) 尹錫範 外 [14].

57) 朝鮮總督府 [10].

58) 〈實銀 제7기 영업보고서〉의 "(朝鮮의) 金融界는 ... 늘 逼迫을 持續하였고, 특히 關東震災 後에는 該地와의 換(爲替)關係도 圓滑을 缺" 했다는 지적은 이를 말한 것이다. 실제로 1923년 하반기에 실은 은 預金 잔고가 줄고 借入金 잔고가 크게 늘었다(표 3, 표 4 참조).

의 回收不能 債權을 안고 있었다.⁵⁹⁾ 이에 實銀은 그 해 8월 청주지점 지배인을 해임하고 9월에 조치원지점 지배인을 경임 발령하였고, 12월에는 조치원지점을 閉鎖하는 自救策을 마련했지만⁶⁰⁾ 사정은 크게 변하지 않아 그 해 11월에는 實銀과 某은행의 합동설이 유포될 정도였다.⁶¹⁾ 不良債權이 급증하며 經營危機에 봉착했던 것이다.⁶²⁾

1924년 상반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 해 초에는, 앞서 鳥致院지점에서 그곳 창고회사에 貸付했던 16만 여 원이 不實債權으로 固定化했고, 仁川지점에서는 擔保 없이 貨物證券擔保貸出금을 편법대출해 준 사건이 발생하였다.⁶³⁾ 게다가 3월 초에는 頭取 古城菅堂, 취체역 吉田秀次郎, 감사역 釘本藤次郎, 天日常次郎 등 實銀의 중역들이 '私利를 圖'하려고 서로 連帶하여 자기은행에서 巨額대출을 받아 하얼빈 거래소(哈爾濱取引所) 株式을 買入했다가, 결과적으로 은행에 큰 손실을 끼친 사건까지 일어났다.⁶⁴⁾ 당시 언론들이 '哈取抱株', '哈取持株' 사건이라 불렀던 實銀 중역들의 대형 非理事件이었다. 사실 당시 일반은행 중역들은 自己銀行에서 거액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는 일이 흔했고, 소정의 절차만 밟으면 불법도 아니었다.⁶⁵⁾ 그러나 사회적 信用機關인 銀行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來韓한 在京 일본인 사회의 제1세대이자 財界 元老들로서 한편으로는 在京 일본인 거류민단과 상업회의소 설립을 주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京城起業會社, 京銀, 京取, 實銀, 京城證券信託(株) 같은 금융기관들을 연쇄적으로 설립·운영해 왔던, 특히 京取 창립 때부터 사장, 전무, 취체역, 감사역, 상담역 등으로 활약하여⁶⁶⁾ 당시 한국 證券業界·米

59) 「동아일보」 1923. 11. 6.

60) 〈實銀 제7기 영업보고서〉.

61) 「동아일보」 1923. 11. 25.

62) 1923년 11월에 實銀 인천지점에 入行했던 李基浩는 당시 實銀이 '景氣의 襲來와 더불어 運營面에 破綻'을 맞은 상황이었다고 회고하였다. 韓國商業銀行 [20].

63) 「동아일보」 1924. 3. 12.

64) 「동아일보」 1924. 3. 12, 3. 26, 4. 5, 8. 31.

65) 총독부 高官이 "地方銀行은 그 地方 實業家가 中心인 이상 혹은 금융상에는 重役이 關係銀行을 이용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不無하나 ... 法規上에는 취체역은 감사역의 承認을 得하면 關係銀行으로부터 貸出을 受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 하등 違法的 行위가 아니"라고 했거나, 京銀이 重役들에게 1인당 1만 원의 상업자금을 융통하고, 또 취체역이 發行 裏書한 어음에 대해서는 3,000원 한도의 자금을 융통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취체역회를 거쳐 그 이상으로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나, 한국인 은행인 全州의 三南銀行이 定款에 "本銀行 重役に 대한 貸付는 一人에 대하여 5,000원을 超過할 수 없다. 但, 取締役의 決議를 經由한 자는 此限에 不在한다"는 규정을 둔 것 등이 예이다. 「동아일보」 1924. 3. 15; 韓國商業銀行 [20], p. 361; 洪性讚 [25]. 일반은행의 '機關銀行化' 현상은 일본에서 더욱 심하였다. 實銀을 '在京 일본인 財閥의 中心機關'으로 평가한 것은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 말이기도 했던 셈이다.

66) 古城은 京取의 창립취체역을 거쳐 당시 相談役으로 활약했고, 吉田은 仁取의 監査役을 지냈으며, 釘本은 경취 창립 때부터 1923년 하반기까지 社長을 지냈고, 天日은 경취의 창립전무를 거쳐 당시 취체역으로서 활약중이었다(표 2) 참조.

豆業界의 산 證人이자 第一人者라는 명성을 얻었던, 그래서 총독부의 신임이 남달랐던 實銀 증역들의 이러한 행위는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다.

實銀에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頭取 古城菅堂을 포함한 관련 重役들에 대한 不信任說이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實銀에 預託해 둔 京城府등의 公金을 당장 他금융 기관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⁶⁷⁾ 게다가 頭取 古城菅堂은 관동대지진 직후에, 朝鮮銀行 理事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全鮮商業會議所 會議席上에서, 京城財界의 元老이자 최대 본점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도도하게 진술' 하여 그 후 '총독부에 불려가 크게 질책당한' 터라 총독부나 조선은행도 결코 實銀에 우호적이지 않았다.⁶⁸⁾ 이에 實銀은 '行務의 刷新과 人氣一轉策'으로서 頭取 古城菅堂, 취체역 吉田秀次郎, 감사역 釘本藤次郎, 天日常次郎 등이 引賣사임하고⁶⁹⁾ 서둘러 資金을 회수하는(〈표 3〉 참조)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다.

2. 朝鮮商業銀行과의 合併

1920년대 前半期の 일반은행, 특히 本店銀行들은 크게 두 가지 經營環境에 직면해 있었다.⁷⁰⁾ 첫째는 한국인 은행에는 한국인이, 일본인 은행에는 일본인이 주로 출입하는 등 설립주체에 따라 고객이 民族的으로 分離된 점이었다. 둘째는 반동공황 이후 경영이 크게 부진해진 점이었다. 1910년대 말 호황기에는 預金과 貸出이 모두 늘며 다수의 은행이 신설·확장되었으나, 반동공황 후 앞서의 대출금 특히 방대한 不動產擔保貸出이 대거 不良化·固定化한 데에다 銀行間 競爭마저 격화하여 대부분의 本店銀行들이 경영위기에 몰렸던 것이다.⁷¹⁾

朝鮮의 各銀行이 財界不況이라 不動產 貸出에 固定하여 … 現狀維持로 上半期(1923년)의 決算을 종료하고 前期와 같은 利益處分을 행하여 表面은 平調를 裝함과 如하나 行內 保管金과 行外 配當金과의 비율은 점차 惡化하여 未經過割引料 및 未拂利息과 如함도 殆히 計上치 아니하는 자가 有하며, 특히 所有 有價證券의

67) 「동아일보」 1924. 3. 12, 3. 15, 1924. 4. 5.

68) 그래서 후일 古城菅堂은 "이 때의 일로 實業銀行은 3년 정도 일찍 合併당했다"고 술회하였다. 京城商工會議所 [6]. 당시 본점은행들은 "少額 貸出에도 일일이 中央銀行인 鮮銀의 援助"를 받아야 할 만큼 형편이 나빠 조선은행에 대항할 수 없었다. 「동아일보」 1924. 3. 27.

69) 「동아일보」 1924. 3.12, 3. 18, 3. 26; 「매일신보」 1924. 3. 26.

70) 尹錫範 外 [14], 洪性讚 [26].

71) 본점은행의 경쟁상대는 在京 일본인 支店銀行, 國策의 특수금융기관(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금융조합 등), 그리고 은행간 협정이자율까지 무시하며 치열하게 預金爭奪戰을 벌인 在京 본점은행들이었다. 尹錫範 外 [14]; 「동아일보」 1923. 4. 10, 4. 14, 4. 16.

價格計上도 非常히 苦心하나 一時를 彌縫한 자가 有함과 如한 바 各行別로 既往 2, 3期の 업적을 비교·대조하면 실로 不健全한 狀態인즉 前途가 頗히 注目할 바.⁷²⁾

이에 은행계 안팎에서는 銀行政策 개선, 銀行產業의 構造調整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혹자는 本店銀行들보다 資本規模, 營業의 歷史, 金融技法 등에서 월등히 앞선 그리하여 항상 예금초과 현상을 보이며 貯蓄자금을 일본으로 유출하고 있던 支店銀行들을 비난하였고,⁷³⁾ 다른 사람들은 조선은행, 식은, 금융조합 같은 특수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줄이거나 勸業金融機關으로 특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일반은행업 兼業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⁴⁾ 한편 은행계 안팎에서는 不實한 群小銀行들, 특히 “地方的 關係와 色彩가 類似한” 은행을 合併하여 은행의 資本金 확충, 經費 절약, 競爭 완화, 人才와 信用의 효율적 확보 관리를 꾀함으로써 銀行株主와 顧客을 보호하고 타산업 발전에도 더욱 기여하도록 하자는 銀行合同論이 크게 확산되었다.⁷⁵⁾

現下 朝鮮에는 특수은행인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을 除하고 또 일본 各銀行 支店 외에 順연한 私立 商業金融機關인 本店銀行은 20개 소인 바 공칭자금 600만 원, 500만 원의 각 1행을 除하면 最低 200만 원 銀行 8行, 150만 원 銀行 2行, 100만 원 銀行 2行, 50만 원 銀行 4行, 30만 원 銀行 1行, 5만 원 銀行 1行인 상태인데 대개 預金貸出이 부진하여 財界에 대한 세력이 미미함은 개탄할 바이다. 資本의 大小는 여하간 實力이 不足한 小銀行이 割據하여 自衛自策으로 곤란한 자가 不少한 모양인즉 조선의 20은행은 1行 내지 5行으로 合同하여 자본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擴大함이 적당하다 信하노라. 합병의 방법은 數銀行을 합병하여 1新銀行을 創設하는 新設과 합병의 결과 1行은 解散하는 소위 吸收合併의 2法이 有한 바 地方的 關係와 色彩의 類似한 者의 2, 3은행의 합동을 爲하여 점차로 목적을

72) 「동아일보」 1923. 8. 4.

73) 1923년 4월 현재 支店銀行(4行, 제1, 제130, 제18, 山口)들의 역사는 평균 28년(1922년 11월에 개업한 山口銀行은 제외)이고, 본점은행은 9년 만이었다. 자본금(불입)은 평균 2,625만 원(1,766만 원)과 263만 원(78만 원)이고, 적립금도 940만 원과 9만 원이었다. 지점은행들은 이처럼 ‘根底가 固’했던 데에다, ‘日本 貿易商과(도) 聯絡이 密接’하여 換去來에도 각종 편의를 줄 수 있었기에 일본과 ‘直接去來하는 商店’들을 대거 고객으로 유치하였고, 또 ‘堅實有力한 定期預金者와 특히 富豪 및 財産을 秘密에 附코자 하는 預金者’까지 끌어들이 수 있었으므로 항상 예금초과 현상을 보이며 초과자금을 일본으로 流出하였다. 예컨대 1923년 5월 말 지점은행(경성, 용산 소재)의 예금총액은 2,007만 원이었으나 대출총액은 951만 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일본으로의 송금수수료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1923. 4. 10, 6. 15, 7. 20.

74) 「동아일보」 1923. 4. 17. 일제가 수용하지는 않았다. 尹錫範 外 [14]; 鄭炳旭 [17].

75) 「동아일보」 1923. 4. 5, 4. 10, 4. 17, 8. 4.

달성하기에 노력함을 희망하는 바이며, 조선은행은 그 직접 營業 範圍를 축소하고 식산은행은 主力을 勸業金融 方面에 傾하여 純然한 상업은행의 발달을 조장하고 互相提携하여 半島財界의 隆盛에 資하기를 희망하는 바.⁷⁶⁾

그렇지만 小銀行이 합병하여 大銀行이 된다고 不實債權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합병이 거론될 때에는 不動產擔保의 整理등 이른바 不實債權 소각을 위한 救濟金融 支援문제가 반드시 함께 거론되었다. 조선은행, 식은 같은 대형 국책은행들, 특히 부동산은행인 식은이 직접 나서서 일반은행의 不動產固定貸를 떠맡아야 한다거나(移質, 轉質), 별도의 대형 不動產信託會社를 설립하여 일반은행의 擔保不動產을 인수시킨 후 식은이 이를 再擔保 再割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⁷⁷⁾ 合併을 통하여 은행을 大型化하고, 나아가 이를 健全化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었던 것이다.

총독부도 합병에 적극적이었다. 사실 銀行 합병문제는 당시 일본에서도 최대 경제 현안의 하나였다. 반동공황(1920), 은행공황(1922), 지진공황(1923)을 겪으면서 소수의 財閥銀行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은행들이 파산 동요한 때문이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銀行新設과 支店濫設을 규제했고, 不動產 貸付를 제한했으며, 地方中小銀行을 地方수준에서 합병하여 이를 대형화하려 하였다.⁷⁸⁾ 1923년 4월 총독부 殖産局長과 財務局長은, 朝鮮商銀과 元山商業銀行 그리고 滿洲商業銀行과 新義州銀行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⁷⁹⁾ 소은행 합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⁸⁰⁾ 그 해 10월 총독부 理財課長은 앞으로 총독부가 은행합병에 적극 나설 것이며 합병시 예상되는 不動產擔保의 轉質과 整理資金 지원에도 나름의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⁸¹⁾ 그리고 총독부는, 본점은행들이 합병의 得失을 분주히 계산중이던⁸²⁾ 그 해 11월에 은행합병 수속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은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향후 총독부가 銀行整理와 合併에 적극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⁸³⁾ 은행합병은 총독부의 기본방침이었다.⁸⁴⁾

76) 「동아일보」 1923. 4. 17.

77) 「동아일보」 1923. 4. 23, 8. 4. 실제로 漢城銀行은 1923년 10월에 일본정부 拓殖局의 認可를 얻어 東拓에 不動產固定貸付 300만 원을 移質시키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1923. 10. 31.

78) 加藤俊彦 [28], 後藤新一 [33].

79) 尹錫範 外 [14], 滿洲商業銀行은 그 후 遼東·大連·奉天銀行 등과 재차 합병하여 滿洲銀行이 되었다. 「동아일보」 1923. 8. 3.

80) 「동아일보」 1923. 4. 23, 4. 25.

81) 「동아일보」 1923. 10. 28.

82) 「동아일보」 1923. 10. 29.

83) 「동아일보」 1923. 11. 8, 11. 22.

84) 당시 총독부는 私設鐵道, 信託會社의 합병도 추진하였다. '整理의 時代'였던 것이다. <實銀 제7기 영업보고서>, 洪性讚 [27].

實銀 중역들이 앞의 '哈取抱株' 사건을 일으킨 것은 총독부가 은행합병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바로 이 때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은행 중역들의 신뢰성·도덕성 문제로 비화되면서 은행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은행합병정책에 기름을 부으며 實銀과 朝鮮商業銀行의 합병설이 大勢를 타게 만든 것이다. 사실 이 두 은행은 '地方的 關係와 色彩의 類似(性)'에서 좋은 합병파트너일 수 있었다. 둘다 서울의 대형 본점은행이고, 특히 조선상업은행은 비록 1899년에 설립된 大韓天一銀行의 후신으로서 당시에도 중역 9명 가운데 8명(頭取 포함)이 한국인이고⁸⁵⁾ '朝鮮人 信用家로 組織된'⁸⁶⁾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株主와 顧客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⁸⁷⁾ 漢城銀行과 달리, 實銀과 "地方的 關係와 色彩가 類似"한 '同種' 銀行이었던 것이다.⁸⁸⁾ 따라서, 은행설립의 주체에 따라 고객도 民族的으로 分化되어 있던 상황에서, '在京 일본인 財閥의 中心機關'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리하여 한국인 고객의 흡수가 절박했던 實銀과 朝鮮商銀의 합병은 은행의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은행계의 內鮮一體를 위해서도 이상적인 합병일 수 있었다.

어쨌든 在京 일본인 사회의 지도급 인사인 古城菅堂, 吉田秀次郎, 釘本藤次郎, 天日常次郎 같은 實銀의 중역들이 '哈取抱株' 사건으로 물러난 가운데 朝鮮商銀과의 합병설이 불거져 나오자, 實銀 專務 豊田明敬은 일단 이를 일축하였다. 후임 중역 선임에 문제가 없고, 朝鮮商銀과 합병교섭을 한 적이 없으며, 합병 분위기도 무르익지 않았고, 특히 "당국의 保護를 받고" 있는 朝鮮商銀과 "순수 民間銀行"인 實銀의 합병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었다.⁸⁹⁾ 그러나 여론은 합병을 강력히 요

85) 頭取 趙鎮泰, 전부 岩崎虎次郎, 취체역 張斗鉉, 高順哉, 裴東燦, 金鎮玉, 감사역 金溶泰, 白象圭, 鳥居千三郎 등이다. 한국인들은 한말이래 서울 상업계, 금융계, 학계에서 활동한 거물 인사들이다. 후술하듯 당시 朝鮮商銀 주주는 일본인이 압도적 비중을 점했는데 그럼에도 한국인이 중역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일본인 專務가 경영실권을 행사했고 또 일본인들이 중역자리를 놓고 서로 반목했기 때문이었다. 「동아일보」 1924. 8. 30.

86) 「동아일보」 1924. 5. 11.

87) 大韓天一銀行은 1905년 금융공황으로 폐업했다가 1906년 당국의 지원으로 재개업하면서 통제도 함께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고객도 일본인 중심으로 바뀌었다. 1907, 1908, 1909년 이 은행 本店의 일본인 예금은 각각 24.7%, 46.2%, 66.3%로 늘었고, 在京 本·支店의 일본인 대출점유율도 39.1%, 45.5%, 51.5%로 늘었다. 서울특별시 [5], 朝鮮總督府 [9]. 1912년에 朝鮮商業銀行으로 개명한 이 은행은 1917년 2월 자본금을 57만 5,000원에서 100만 원으로 增資하면서 일본인의 주식소유를 허용하여 일본인 주주(주식)가 그 해 6월 말 24.6%(24.9%), 1918년 말 54.0%(48.6%), 1919년 말 59.8%(51.7%), 1921년 말 64.0%(63.4%), 1923년 말 70.8%(68.6%)로 줄곧 늘었다. 尹錫範 外 [14]; <朝鮮商銀 영업보고서>. 일본인 고객도 늘어 1922년 9월 이들의 대출점유율은 61.1%(한국인 38.3%)로서 한성은행 11.2%(74.8%), 한일은행 0.4%(98.0%)와 대조적이었다. 「동아일보」 1922. 10. 23. 實銀과 합병한 후인 1924년 말의 일본인 대출점유율은 84.3%로 더욱 늘었다.

88) 「매일신보」 1924. 3. 28.

구하였다.⁹⁰⁾ 實銀 大株主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이제 實銀 두취는 大株主가 아닌, 은행장 업무에 '專任' 할 專門經營者('大家') 가운데에서 뽑아야 하며, 不況으로 增資가 곤란하고 한국인 은행인 漢城銀行과는 합병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차제에 '同種' 은행인 朝鮮商銀과 合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¹⁾ 특히 이들은 합병과 동시에 조선은행이 합병은행을 적극 지원할 것도 촉구하였다. 大型化와 함께 健全化·優良化를 함께 요구한 것이다.⁹²⁾

1924년 4월 1일 앞서 합병에 반대했던 實銀 전무 豐田明敬이 사표를 내자,⁹³⁾ 두 은행 합병은 급속히 진척되었다. 서울의 2대 본점은행인 두 은행 합병은 京城財界의 공통 관심사였으므로 京城商議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⁹⁴⁾ 4월 10일 京城商議는 두 은행 합병이 여론화된 '好機會'를 맞아 과연 합병이 경성재계를 위하여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면 합병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토의하기 위하여 役員會와 金融部會 합동회의를 소집했고, 실은의 顧問辯護士 高橋章之助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⁹⁵⁾ 4월 16일 京城商議 評議員會는 銀行合同問題調査委員을 위촉했고, 이들은 18일 총독부(정무총감, 理財課長), 殖銀, 商銀, 實銀을 방문한 후, 19일 평의회에 兩行 당사자를 부르기로 하였다.⁹⁶⁾

京城商議조차 合同에 적극적인 가운데, 實銀은 頭取代理 山口太兵衛와 중역 天日常次郎, 中村再造 그리고 顧問변호사 高橋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大勢와 輿論에 밀려 합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은행계 주변에서는 합병시 實銀의 "不良貸出" 내용이 폭로되고 이를 整理하는 과정에서 銀行信用은 크게 훼손될 것이며, 특히 그 동안 자신들이 無擔保로 거액을 편법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남은 물론 앞으로 더 이상 편법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89) 「동아일보」 1924. 3. 27. "當局的 保護"란 總督府(2,679주)가 최대주주였음을 말한다. 殖銀(1,800주)과 李王職長官(1,010주)도 대주주였다.

90) 「메일신보」 1924. 3. 27; 「동아일보」 1924. 4. 7. "합병문제는 當行當事者 및 株主의 一致된 希望이며 輿論의 主張하는 바"; 「메일신보」 1924. 4. 7. "財界不況에 鑑하여 合併斷行이 必要하다 함은 一般社會의 輿論."

91) 「메일신보」 1924. 3. 28.

92) 朝鮮商銀 전무도 합병에 반대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1924. 3. 27.

93) 「동아일보」 1924. 4. 2. 豐田은 그 해 9월에 평양의 일본인 은행인 大同銀行 대표 겸 전무가 되었다. 洪性讚 [23].

94) 1925년에 平壤의 일본인 은행인 大同銀行과 朝鮮商銀이 합병할 때에도 平壤商業會議所와 平壤繁榮會의 일본인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였다. 洪性讚 [23].

95) 「동아일보」 1924. 4. 7; 「메일신보」 1924. 4. 7. 4. 14. 참석자는 會頭 釘本藤次郎, 副會頭 渡邊定一郎, 특별의원 3인, 금융부장 佐野彦藏과 금융부원 5명, 書記長 大村 등이었다.

96) 「동아일보」 1924. 4. 16, 4. 17; 「메일신보」 1924. 4. 19. 조사위원은 李軫鎭, 南廷圭, 佐藤彦藏, 藤田米之郎, 陳內茂吉, 寺尾猛之郎, 增田三穂, 田川常次郎, 梁在昶, 林管吉, 渡邊定一郎 등이다.

는 소문이 퍼졌을 만큼 여론과 당국의 압력이 거세었던 것이다.⁹⁷⁾ 實銀이 합병에 '漸進主義'를 취하다가 결국 '周邊 事情에 의해' 굴복했다거나,⁹⁸⁾ '經濟界의 大勢'가 '地方 小銀行의 群立을 不許하는 事情'이라서 결국 합동에 응했다는⁹⁹⁾ 지적도 이런 사정을 말한 것이었다. 여론을 앞세운 총독부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¹⁰⁰⁾

1924년 4월 18일 朝鮮商銀은 취체역 張斗鉉, 高順哉, 裴東燦 등이 '事故로 缺席'한 가운데 중역회를 열어, 합동은 하되 방법은 당사자 협의에 의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¹⁰¹⁾ 商銀 전무 岩崎虎次郎은 이를 총독부(정무총감, 재무국장代理)와 조선은행(영업부지배인), 경성상의(합동문제조사위원회대리, 書記長)에 보고하였다. 4월 21일 두 은행은 합동문제 처리를 조선은행에 의뢰했고, 京城商議(부회두 渡邊), 實銀(頭取代理 山口), 商銀(전무 岩崎) 대표자 3인은 총독부(정무총감, 이재과장)를 방문하여 합동에 관한 兩行의 일치된 의견을 보고하였다.¹⁰²⁾ 商銀 전무와 實銀 두취대리는 같은 날 조선은행에서 회견하고 각각 大株主會(100주 이상 주주)를 열어 이를 논의하기로 하였다.¹⁰³⁾ 이에 조선은행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두 개 또는 수개 은행의 합동은 바람직한 일이므로, 強勸하지는 않겠지만 '自發的' 합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¹⁰⁴⁾ 4월 30일 商銀 대주주회는 '財界의 大勢에 順응'하여 實銀과 합병하되 합병안은 조선은행에, 구체적 교섭은 취체역들에게 일임한다면서 若松兎三郎, 篠崎半助, 今村伊三郎, 朴宇鉉, 白完燦, 金元植 6인을 實行委員으로 선임하였다. 實銀의 대주주회도 新設合併이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구체적 교섭을 취체역에게 일임했고, 株主들의 추천으로 渡邊定一郎, 進辰馬, 加來榮太郎 3인을 相談役에 임명하였다. 대주주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合併銀行의 이름과 合

97) 「동아일보」 1924. 4. 13. 1924년 상반기에 '或種의 流言'으로 "業界에서 信用을 의심받았다"는 것은 이를 말한 것이겠다. 「實銀 제8기 영업보고서」.

98) 「동아일보」 1924. 4. 18.

99) 〈實銀 제8기 영업보고서〉.

100) 朝鮮商銀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商銀의 어떤 大株主(100주 이상)는 두 은행의 성질이 다르고, 적립금 등 경영내용도 다르며, 또 합병 후 주주들은 減配를 당할 것이고, 고객도 불편을 겪을 것이라면서 합병에 반대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鮮銀과 總督府가 周旋하는 이상 重役들은 合同에 반대하기 難' 할 것이라고 보았다. 「동아일보」 1924. 4. 19. 실제로 1924년 6월 말 商銀의 15大 주주는 朝鮮總督 2,679주, 朴宇鉉 2,185주, 殖銀 1,800주, 齋藤久太郎 1,370주, 川崎良太郎 1,190주, 若松兎三郎 1,170주, 宋星鎮 1,090주, 崎半助 1,060주, 李王職長官 1,010주, 趙鎮泰 900주, 新井虎太郎 850주, 吉村謙一郎 800주, 唐川立造 764주, 宋秉濬 754주, 吉田秀次郎 743주, 小口今朝吉 700주 등이었다. 이들의 면면으로 보아 총독부 정책에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01) 「동아일보」 1924. 4. 20.

102) 「동아일보」 1924. 4. 21, 4. 22.

103) 「동아일보」 1924. 4. 23.

104) 「매일신보」 1924. 4. 24 ; 「동아일보」 1924. 4. 24.

併條件이었는데, 가급적 新銀行을 창립하여 양자가 합치자는 분위기였다.¹⁰⁵⁾

5월 초 山口, 古城, 和田 등 실은의 세 殘留 重役이 '合同의 前提'로서 사직하기로 한 가운데, 5월 9일 두 은행 대표들은 조선은행에 합동각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주선을 의뢰하였다.¹⁰⁶⁾ 실무작업은 5월 21일 조선은행 총재가 歸京하면서 빠르게 진척되었다.¹⁰⁷⁾ 특히 총독부는 합동 후 탄생할 자본금 700만 원의 새 은행에 각종 편의를 줄 것이며, 합동 전의 결손은 두 은행 적립금으로 소각하되 부족하면 이를 事後에 整理해도 좋으며 조속한 합병을 적극 지원하였다.¹⁰⁸⁾ 6월에 朝鮮銀行은 합병안을 제시하였다.¹⁰⁹⁾ 일정은 조선은행 監理아래 양측이 조속히 합병각서를 작성하며, 7월 23일 주총에서 이를 승인받아, 8월 3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는 것이었다. 합병조건도 제시되었다. 對等合併하되 朝鮮商銀이 實銀을 합병하는 형식을 취한다. 行名은 합병 후 새로 정하고, 實銀株는 납입액대로 朝鮮商銀의 第2新株와 교환한다. 두취와 전무는 조선은행이 추천하고 나머지 증역은 두 은행에서 3명씩 추천한다. 두 은행 적립금은 모두 결손소각에 충당하되 조선은행에서 年利 8%로 200만 원을 융통받고 합병 후 주주배당을 제한하여 문제의 固定貨를 조속히 整理한다는 것 등이었다.¹¹⁰⁾ 두 은행 대주주회는 이를 원안대로 승인하였다.¹¹¹⁾

1924년 6월 30일 合併假契約이 체결되었다. 자본금 212만 5,000원의 朝鮮商銀이 자본금 500만 원의 實銀을 합병하여 자본금을 712만 5,000원으로 늘리고, 實銀은 해산하기로 하였다. 두 은행의 '全然 回收不能'한 대출금은 조선은행과 협의하여 법정적립금을 뺀 나머지 적립금으로 整理하며,¹¹²⁾ 합병완료 때까지의 이례적 지출이나 중요사안은 조선은행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實銀의 행원은 商銀에서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합병 전에 가능한 한 행원을 整理하여 그 수를 '업무집행이 가능한 최소한도로 감소'시키기로 하였다.¹¹³⁾ 行名은 오랜 역사를 지닌

105) 「동아일보」 1924. 5. 2. 5. 22; 「매일신보」 1924. 5. 2.

106) 「동아일보」 1924. 5. 7. 5. 11.

107) 「동아일보」 1924. 5. 21.

108) 「동아일보」 1924. 5. 23.

109) 「동아일보」 1924. 6. 24.

110) 1925년 朝鮮商銀이 不實銀行인 大同銀行을 합병할 때에도 조선은행은 대동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180만 원의 대출금리를 4%로 낮추어 10년 거치 상환하도록 하는 한편 年利 5%의 저리자금 50만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하였다. 洪性讚 [23].

111) 朝鮮商銀 大株主會는 협의회장 若松과 전무 岩崎의 보고 후, 대주주 齋藤久太郎, 吉田秀次郎, 小林藤右衛門의 발의로 朝鮮銀行案을 原案대로 통과시켰다. 「동아일보」 1924. 6. 23.

112) 조선은행에서 종전의 대출금리보다 2% 낮은 8% 低利로 200만 원 가량의 자금을 융자받고, 당분간 배당률을 8% 정도로 제한하면 수년 내에 문제의 '固定貨整理'를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동아일보」 1924. 6. 24.

113) 〈合併假契約書〉.

‘朝鮮商業銀行’을 유지하기로 했고, 그 대신 本店은 實銀 본점으로 정하였다.¹¹⁴⁾ 그 후 두 은행 行員과 支店도 整理되었다.¹¹⁵⁾ 최대 난제였던 합병은행 중역 10명도 결정되었다. 頭取 和田一郎(총독부 재무국장), 副頭取 趙鎮泰, 專務 古宇田巖,¹¹⁶⁾ 常務 金鎮玉, 취체역 山口太兵衛, 古城梅溪, 監事役 中村再造, 和田常市, 若松兎三郎(商銀 대주주), 張斗鉉이 선임되었다.¹¹⁷⁾ 조선은행 추천으로 외부에서 2명(和田一郎, 古宇田)이 영입되고,¹¹⁸⁾ 實銀(山口, 古城, 中村, 和田常市)과 朝鮮商銀(趙, 金, 若松, 張)에서 4명씩 추천되었다. 한국인은 3명뿐이고,¹¹⁹⁾ 일본인 財界元老인 中村, 和田常市, 山口, 古城은 그대로 남았다.¹²⁰⁾

두 은행의 합병은 한국근대금융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첫째는 서울에 本店을 둔 두 大銀行이 합동하여 자본금 712만 5,000원의 巨大銀行을 탄생시킨 점이다. 그 동안 地方銀行間 합병이나, 地方銀行과 在京 本店銀行間 합병은 있었지만, 在京 본점은행끼리의 합병은 처음이었다. 둘째는 두 은행 합병에 總督府, 朝鮮銀行, 京城商議가 적극 개입한 점이다. 사실 두 은행은 여러 면에서 처지가 달랐다. 합병 가계약을 체결한 1924년 6월 말 현재 商銀의 적립금은 69만 원이었으나 實銀은 7만 원에 불과했고, 預金도 商銀은 1,094만 원이었으나 實銀은 468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¹²¹⁾ 특히 영업의 역사가 26년이나 되는 商銀은 ‘연조가 오래이니만큼 각처에 좋은 기지(우량고객 : 필자)가 많이 있고 조선인 상업계에 신용이 있는’ 터였으나, 설립된 지 5년에 불과한 實銀은 ‘아무 기반이나 기지가 없었다.’¹²²⁾ 이를 반영하여 京取에서의 株價도 합병설이 불거져 나온 1924년 3월 말 현

114) 「동아일보」 1924. 8. 7.

115) 「동아일보」 1924. 8. 29. 당시 實銀에 근무했던 李基浩는 이 때 減員 대상자를 電報로 通知했기 때문에 전보배달부가 들어설 때마다 支店長 이하 全職員이 ‘死刑宣告를 기다리는’ 심정이었다고 회고하였다. 韓國商業銀行 [20], p. 409.

116) 1908년 동경제대 졸업 후, 大阪의 山口銀行, 久原鑛業會社 등을 거쳐, 1919년 조선은행에 들어가 總務部長代理, 鎮南浦支店長을 지냈고 당시는 朝鮮銀行 釜山支店 지배인이었다.

117) 「동아일보」 1924. 4. 19.

118) 조선은행은 합동주선 때부터 조선은행의 대출한도를 늘려 주되, 감독상 필요를 내세워 그 두취를 자신들이 추천하고 ‘鮮銀係(朝鮮銀行係)의 인물’을 입사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동아일보」 1924. 5. 23.

119) 한국인 副頭取와 常務의 연간 報酬(봉급, 수당)는 각각 3,000원으로 은행장 1만 원, 전무 6,000원보다 크게 낮았다. 實權도 그만큼 낮았던 셈이다. 「동아일보」 1924. 9. 2.

120) 中村(1926. 10), 和田(1928. 3), 山口(1934. 11)는 그 후 死亡하여 각각 중역에서 물러났고, 古城은 1928년 7월에 사임하였다. 이에 앞서 釘本藤次郎(1923. 11), 和田(1924. 5), 山口(1924. 5)는 京取의 중역진에서 물러났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來韓하여 京城 財界 특히 金融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인 민간인 元老들은 이렇게 사라졌다. 이에 在京 일본인 財界는 급속하게 世代交替되었다. 洪性讚 [25], [27].

121) 〈朝鮮商銀 제38기 영업보고서〉; 〈實銀 제8기 영업보고서〉.

122) 「동아일보」 1924. 8. 31.

재 商銀株(50원 납입)와 實銀株(20원 납입)가 각각 41원과 10원 30전으로 차이가 났고, 합병 가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1924년 6월 하순에도 38원과 10원 30전으로 차이가 났다.¹²³⁾ 그럼에도 總督府, 朝鮮銀行, 京城商議는 두 은행을 對等 合併시켰고,¹²⁴⁾ 특히 조선은행은 合同案을 만들어 양측을 중재하고 200만 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합동은행에 頭取와 專務를 추천 파견하였다. 일제하 官治金融의 한 樣相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셋째는 그 동안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국인이 중역의 다수를 점하는 등 나름대로 한국인 은행의 이미지를 건지해 왔던 朝鮮商銀이 이로써 완전히 일본인 은행화한 점이다. 朝鮮商銀의 소유권, 경영권이 명실상부하게 일본인 수중으로 넘어간 것이다.

IV. 結 語

일제는 한국을 일본자본주의에 편입시켜 그 利源을 開發하고 收奪을 극대화하는 데에 강점정책의 기본목표를 두었다. 이런 가운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入京하여 日帝의 지원아래 京城日本人居留民團과 京城日本人商業會議所를 설립·운영하며 在京 일본인 사회의 유력자로 浮上했던 一群의 일본인들은, 1920년에 한국 최초의 증권거래소, 증권시장인 京取를 설립하고, 京取에서 證券金融 업무를 담당할 機關銀行格으로 實銀을 창립하였다. 強占政策 수행에 필요한 資本動員을 위하여 直接金融과 間接金融을 장악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實銀은 서울의 유일한 일본인 本店銀行으로서 주로 일본인에게 短期의 商業資金과 證券資金을 공급하면서 차츰 업세를 늘려갔다. 그러나 實銀의 經營환경과 업적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1920년에 발발한 반동공황의 여파로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았고, 1921년에 일시 活況을 맞았던 證市도 長期沈滯했으며, 1923년 9월에는 關東大地震까지 겹쳐 큰 위기를 맞았다. 한국인 고객을 흡수하는 데에도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1924년 초에는 이 은행 중역들이 자기은행에서 巨額을 貸出받아 이를 株式에 投資했다가, 결과적으로 은행에도 막대한 손해를

123) 1924년 3월 25일, 6월 28일 가격이다. 「동아일보」 1924. 3. 26, 6. 29. 實銀株와 달리 商銀株가 41원에서 38원으로 하락한 것은 합병할 은행인 實銀의 부실이 반영된 것이겠다.

124) 1924년 5월 초에는 株價가 다른 두 은행의 '無條件 對等合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아일보」 1924. 5. 7. 이에 총독부와 조선은행은 조선상은 주주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상은의 '配當平均積立金' 12만 7,000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총독부(2,679주)를 뺀 나머지 주주들에게 '合併記念配當金(7%)'으로서 특별배당하기로 하였다. 「동아일보」 1924. 6. 24; <朝鮮商銀 제36기 영업보고서>.

끼친 사건까지 일어났다. 사회적 信用機關인 은행 중역들의, 특히 京城 일본인 財界의 元老들이었던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實銀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그렇지 않아도 群小銀行 합병정책을 추구해 왔던 총독부의 은행합동정책은 더욱 대세를 타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朝鮮商銀과의 合併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實銀은 總督府, 朝鮮銀行, 京城商議까지 가세하여 압박하는 가운데 1924년 8월 朝鮮商銀과 對等 合併함으로써 자본금 712만 5,000원의 巨大銀行인 '朝鮮商銀'으로 흡수 용해되었다.

그 후 朝鮮商銀은, 1925년에 平壤의 大同銀行(1925)을 합병하면서 그 不實與信까지 떠맡아 한때 침체를 면하지 못하였고, 특히 대공황기에는 경영이 더욱 악화하여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총독부의 강력한 지원아래 全州의 三南銀行(1928), 咸興의 北鮮商業銀行(1933), 釜山の 釜山商業銀行(1935), 大邱의 大邱商工銀行(1941) 등을 연쇄적으로 합병하여 일제 말에는 한국 최대의 본점은행이 되었다. 한국근대금융사에서 朝鮮商銀이 一般銀行 合併史의 한 中心에 섰던 데에는 實銀과의 合併이라는 先行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부록〉 朝鮮實業銀行 발기인

이름	引受株數	경 력
秋吉富太郎	1,500	京銀 대주주, 京銀 前身인 京城起業 中역, 京城商議 會頭, 京城日丸 水産 中역, 中村再造 동생
古城菅堂	1,000	京銀 中역, 京取 발기인, 中역, 仁取 中역, 京城居留民團 議員, 京城 商議 特別의원, 東洋生命保險 中역, 京城醫師會長, 京畿道評議員, 京城府協議員, 京仁지역의 일본인 大長老
林田金次郎	1,000	京銀 대주주, 京城商議 議員, 論山精米, 京城日丸水産, 京城窯業 中역
和田常市	1,000	京銀 中역, 京取 발기인, 中역, 京城商議 會頭, 京城日丸水産 中역, 日華木材 사장
梶原末太郎	1,000	京銀 中역, 京城商議 役員·의원, 藤富商會 中역
中村再造	1,000	京銀 頭取, 京城商議 會頭·特別議員, 光州綿業, 共立倉庫物産, 京城 日丸水産 中역, 三南殖産 사장
古城梅溪	1,000	京銀 中역, 醫師, 朝鮮製綿·朝鮮土地經營 中역
關繁太郎	1,000	京銀 前中역, 京城商議 副會頭, 貿易商, 京城日丸水産, 日華木材, 朝鮮 天然水, 大正土地建物, 溫陽溫泉, 京城劇場 中역, 朝鮮活動寫眞 사장
釘本藤次郎	1,000	京取 발기인대표, 社長, 京城商議 副會頭, 釘本藤次郎本店과 진남포 支店경영, 京城繁榮會長, 경기도평의원, 京龍金物商組合長, 朝鮮皮革, 特許시멘트瓦, 東洋畜産興業, 南朝鮮鐵道 中역, 朝鮮製綿, 朝日釀造, 大正土地建物 사장
天日常次郎	1,000	京取 발기인, 專務, 仁取 中역, 京城商議 役員·議員, 京城에서 精米 所, 朝鮮煙草, 朝鮮窯業, 朝日釀造 中역, 朝鮮精米 전무
吉田秀次郎	1,000	仁取 中역, 仁川商議 會頭, 元山商銀 頭取, 朝鮮 海運界 元老, 1912년 朝鮮郵船會社 창립, 專務, 1916년 인천 吉田商會 경영, 吉田運送, 吉田倉庫 사장, 吉田米穀, 朝日釀 造, 朝鮮火藥, 朝鮮燒寸, 朝鮮澱粉 中역, 奧田精米, 朝鮮土地經營 사 장, 仁川學校組合평의원, 仁川穀物協會長, 仁川財界의 1인자
廣澤正次郎	1,000	仁取 仲買人
安盛孫兵衛	1,000	
內海淑郎	1,000	仁取 仲買人
末森富良	700	日華木材, 朝鮮土地經營 中역
山口太兵衛	500	京銀 中역, 京取 발기인, 취체역, 京城商議 會頭·특별의원, 朝鮮窯 業 사장, 京城日丸水産 사장, 京城郵船, 中央鐵道, 京城電氣 中역
田中友吉	500	京取 仲買人, 大正石粉工業 전무
新田耕市	500	京取 仲買人
有田長	500	京取 仲買人

이름	引受株數	경력
中河原重吉	500	京取 仲買人, 藤富商會, 大正土地建物 중역
河野竹之助	500	仁取 중역, 朝日釀造 중역
松本勝太郎	500	京城商議 議員, 京釜 京義鐵道 工事 중사, 漢江通에서 土木建築請負業
進辰馬	500	京城商議 議員, 龜屋商店(洋酒食料菓子雜貨商)
高木德彌	500	京城商議 議員, 雜貨都賣商, 煙草專賣 후 官製煙草元賣捌人, 京城煙草元賣捌(株) 사장, 朝鮮製綿 중역, 町總代
高島周祐	500	京城商議 議員
矢澤近次郎	500	京城商議 議員, 東洋生命保險(株) 京城支店 대표
篠崎半助	500	京城商議 議員, 朝鮮印刷, 朝鮮土地經營, 朝鮮活動寫眞, 戶田農具, 東亞商工 중역
辻本嘉三郎	500	京城商議 議員, 京城 최대 食料品商, 朝日釀造, 朝鮮土地信託 중역, 京城繁榮會, 京城御商聯合會 창설 참여
大和興次郎	500	京城商議 議員, 牙山에서 商業 農業, 1908년 漢江通에서 運送業, 朝鮮運送聯合會 창립 발의 후 朝鮮運輸計算(株) 사장
山崎鹿藏	500	1904·1905년 陸軍通譯官, 1913년부터 農事經營, 1919년 京城有價證券現物賣買問屋業, 1921년 4월 京城證券信託 지배인
池田長兵衛	500	京城商議 役員·議員, 舶來雜貨商, 1911년 京城競賣(株) 창설, 專務, 1912년 總督府郵便所長 補任, 京城衛生組合長, 京城學校組合會議員
今井修一	500	
羽多野彌五郎	500	
大庭讓太郎	500	
大森薰治	500	
赤荻與三郎	500	大正土地建物 專務
新井虎太郎	500	仁川에서 藥種商, 1908년 南大門通에서 藥種商
淺海助太郎	500	朝鮮製綿·京城煙草元賣捌所 중역
佐藤牧太郎	500	京城商議 議員, 朝鮮製菓 중역
北村清太郎	500	
北野善造	500	大正土地建物·朝鮮製綿 중역
三好和三郎	500	京城商議 議員, 三好和商店(海產物, 米穀貿易)과 精米業, 土地家屋經營, 朝鮮土地經營 중역, 京城府協議員
三田政治郎	500	日韓貿易商社 회계주임, 1898년부터 南山町에서 三田政商店(硝子商)
城台一六	500	
椎木宇之助	500	

자료 : 朝鮮實業銀行 [1]; 貴田忠衛 [7]; 阿部薰 [8].

◆ 참고 문헌 ◆

〈자 료〉

1. 朝鮮實業銀行, 『會社設立關係書類』, 1920.
2. _____, 『記錄』, 朝鮮實業銀行創立事務所, 1920.
3. 『營業報告書』, 朝鮮實業銀行·京城銀行·朝鮮商業銀行 各期.
4. 「東亞日報」, 「每日申報」.
5. 서울특별시, 『서울統計資料集』, 大韓帝國時期編, 1996.
6. 京城商工會議所, 『京城商工會議所二十五年史』, 京城商工會議所, 1941.
7. 貴田忠衛, 『朝鮮人士興信錄』, 朝鮮新聞社, 1922.
8. 阿部薰, 『朝鮮功勞者名鑑』, 1935.
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
10. _____, 『朝鮮金融事項參考書』, 各 연도.
11. 川端源太郎, 『在朝鮮內地人實業家辭典』, 朝鮮實業新聞社, 1913.

〈연구논저〉

12. 高承濟, 『韓國金融史研究』, 일조각, 1970.
13. 배영목, “植民地 朝鮮의 通貨 金融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0.
14. 尹錫範 外, 『韓國近代金融史研究』, 世經社, 1996.
15. 李碩崙, 『韓國의 一般銀行』, 법문사, 1988.
16. 李順鐸, “京城이냐? 케이쥬우냐?”, 「東亞日報」 1927. 1. 5.
17. 鄭兩旭, “日帝下 朝鮮殖産銀行의 産業金融에 관한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1998.
18.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박영사, 1973.
19. 朝興銀行, 『朝興銀行百年史』, 1997.
20. 韓國商業銀行, 『韓國商業銀行六十年誌』, 1959.
21. _____, 『韓國商業銀行九十年史』, 1989.
22. _____, 『韓國商業銀行百年史』, 1998.
23. 洪性讚, “日帝 强占期 平壤지역 日本人의 銀行 설립과 경영”, 「연세경제연구」, III (2), 1996.
24. _____, “1920년대의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株) 研究”, 『經濟史學』, 22, 1997.
25. _____, “韓末·日帝初 在京 日本인의 銀行 설립과 경영”, 『韓國史研究』, 97, 1997.

26. _____, “韓末・日帝下 全南지역 한국인의 銀行 設立과 經營”, 『省谷論叢』, 30(2), 1999.
27. _____, “1920년대 「京取」의 經營變動과 關聯機關들의 動向”, 미발표.
28. 加藤俊彦, 『本邦銀行史論』, 東京大學出版會, 1957.
29. 堀和生, “朝鮮における普通銀行の成立と展開”, 『社會經濟史學』, 4(1), 1983.
30.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1989.
31. _____, “在外居留民の社會活動”,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5, 岩波書店, 1993.
32. _____, “朝鮮居留地における日本人の生活態様”, 『一橋論叢』, 115(2), 一橋大學, 1996.
33. 後藤新一, 『本邦銀行合同史』,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68.